

일반논문

김현주 |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 갈등과 층위의 문제

이소희 | 신소설 재외 이주 서사에 나타난 젠더 연구

- 「소학령」을 중심으로

박소연 | 문화번역 및 번역된 젠더에서 바라 본 식민 여성

- 1938년 작 조선영화 「어화」를 중심으로

이미정 |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 연구

-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을 중심으로

이상진 |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구명숙 | 김남조 후기시에 나타난 노년의식

임옥규 | 선군시대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

- ‘렘형미, 리연희, 리라순’의 사회주의 현실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 갈등과 층위의 문제*

김현주**

차례

1. 머리말
2. 춘향과 기생의 갈등 양상
 - 2.1. 행수기생 거동
 - 2.2. 춘향의 초래 거절과 행수 보고
 - 2.3. 춘향의 행수 원망
 - 2.4. 기생의 춘향 위로 및 구호
3. 갈등을 통해 본 여성 층위의 문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춘향전>의 인물 갈등이 춘향과 변학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춘향 이외에도 다수의 기생이 등장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춘향전 전집』에 실린 103종의 작품을 대상으로 춘향과 기생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57종의 작품에서 춘향과 기생이 갈등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갈등은 주로 이도령이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한 이후부터 춘향이 형장을 맞은 데까지에 국한되어 드러났다. 기생은 춘향이 기생이면서 수절하는 점을 문제 삼았고, 춘향은 기생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을 계속 기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7035978]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생으로 인식하는 기생들의 태도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결국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기생이면서 여성인, 당대 사회가 만들어낸 이중적 타자라는 신분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주로 남성에 의해 정체성이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던 존재로 춘향은 기생들과 달리 이도령을 통해 특정한 타자의 자리를 획득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인물들은 층위가 구분되며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여성 간 층위의 문제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춘향의 ‘사랑’과 ‘열(烈)’ 역시 남성에게 종속되었을 때만 그 의미가 발현될 수 있던 당대 이데올로기의 자장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춘향전>, 이중적 타자, 여성 갈등, 여성 문제, 여성 층위

1. 머리말

공동체는 혈연이나 환경, 목적 등에 의해 구성, 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갈등이다. 갈등은 야기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와 구성원이 속한 구조의 모순이나 은폐되었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게 한다. 동시에 그 지향하는 바를 확인시켜주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고전문학을 통해 당대 사회와 현실, 인간 문제 등을 확인하고 현재를 점검하는 데에도 갈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갈등으로 인식하느냐가 주제, 상황, 관점, 시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에 따라 주와 종, 선과 악 등 허용되고 설정, 허용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전작품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이 향유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

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작품은 몇 안 될 것이다. 그 중 <춘향전>은 판소리와 소설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로 재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그 서사의 영역이 확대되기도, 공고해지기도 하면서 최근까지 계속 창작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¹⁾ 이러한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 걸맞게 작품에 관한 연구 역시 상당히 축적된 상태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춘향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춘향전>에는 양반, 기생, 농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은 관계를 통해 주제를 도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간 <춘향전>의 인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인공인 춘향, 이도령, 변학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방자와 월매 등과 같이 주변인물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 바 있다.³⁾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인물이 있는

-
- 1) 신원선, 『<춘향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2000년 이후 영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52집,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2, 1~34쪽.
 - 2) <춘향전>에 관해서는 김동욱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5; 김동욱·김태준·설성경 공저, 『춘향전 비교 연구』, 삼영사, 1979; 설성경, 『춘향전의 통시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4;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현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4 등을 위시하여 장르, 주제, 인물, 전승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본고와 관련되어 있는 <춘향전>의 갈등 및 주제, 이본에 관련된 대표적 연구 목록을 간략히 발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계명논총』 6, 계명대, 1970; 설성경, 『춘향전의 계통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0; 김복희, 『춘향전의 다층적 주제-사랑을 통한 신분제도의 극복과 자기실현의 의미 고찰』, 『어문논집』 7,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4; 나병철, 『춘향전의 주제 연구』, 『연세어문학』 18, 연세대, 1985; 설성경·박태상, 『춘향전 주제 이해의 방법』,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정하영, 『춘향전의 주제』,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김경미, 『구활자본 『춘향전』의 개작양상과 그 의미』, 『이화어문논집』 9, 이화여대 이화어문회, 1987;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2; 신동훈,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적 변모양상』, 『판소리연구』 제8집, 판소리학회, 1997; 차홍환, 『국문필사본 『춘향전』의 계열과 성격』, 『판소리연구』 제18집, 판소리학회, 2004; 이문성, 『필사본 춘향전의 문예의식과 문예사적 의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 -<옥중화> 계통본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데 바로 기생이다.⁴⁾ <춘향전>은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나 아니냐에 따라

-
- 3) 김현룡, 「고소설의 ‘방자’ 소재」,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김홍규, 「방자와 말뚝이 : 두 전형의 비교」,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1978.
 박중섭, 「춘향전 방자의 성격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7.
 권두환·서중문, 「방자형 인물고」,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헌 편, 서광학술자료사, 1994.
 곽정식, 「춘향전 개작에 따른 방자의 작중기능 변이양상」, 『한국문학논총』 11, 한국문학회, 1990
 정출현,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이교본 『춘향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정하영, 「월매의 성격과 기능」,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헌 편, 서광학술자료사, 1994.
 송재용, 「<춘향전> 인물의 의식세계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제31집, 동양고전학회, 2008.
 최재우, 「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 간의 특성 차이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회』 제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이상일, 「춘향의 신분 정체성을 통해 본 이몽룡의 인물 형상」,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김현주·김진선, 「향단의 성격과 기능의 변이 양상」, 『우리문학연구』 44호, 우리문학회, 2014.
- 4) <춘향전>의 주인공과 보조인물들의 관계에 주목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은희는 <남원고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춘향전> 인물간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면서 방자와 이도령, 춘향과 이도령, 춘향과 신관사또, 춘향과 하층인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하층인으로 군로사령만 살핀 바 있다.(이은희, 『춘향전의 갈등 구조』, 『이화어문논집』 8, 이화여대, 1986, 427~439쪽.) 한규섭은 병오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대상으로 이도령과 춘향의 성격을 살피면서 춘향을 돕는자로 향단, 봉사, 반수들 남원한량들, 남원기생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들을 단순히 배경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한규섭, 『춘향전의 인물기능과 성격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11집, 열상고전연구회, 1998, 177~213쪽.) 신선희의 논의 역시 <완판 33장본>을 대상으로 여성인물(춘향)의 언술양상을 살폈는데 춘향은 발화의 주체자이고 기생은 청자로 춘향의 고행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기생들이 춘향을 열녀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보았다. 이 역시 다른 본과의 비교 없이 단일 본을 대상으로 살폈기 때문에 춘향과 기생의 관계를 정확히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신선희,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언술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2집, 장안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417~439쪽.) 최재우는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대상으로 춘향전의 보조인물(월매, 방자, 농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논의에 의하면 “<남원고사>의 방

나뉘기도 하며 이것이 추후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춘향과 신관 변학도 사이의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 동시에 작품의 주제인 춘향의 사랑을 미화, 강조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춘향전>에는 춘향 이외에도 기생들이 등장하는데 기생이라는 신분이 춘향에게만 국한되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다른 기생들에게 춘향은 어떻게 비취졌을지, 그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춘향과 기생은 모두 신분적 제약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당대의 관점을 보았을 때 이중적 타자⁶⁾인 셈이다. 그러므로 춘향과 기생 사이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면서 <춘향전>을 읽는 행위는 당대의 여성 문제에 접근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춘향전 전집』에 실린 103종의 작품⁷⁾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작품은 계열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자는 춘향과 긴장관계에 놓이는 반면, <84장본>에서는 긴장의 정도가 약화되어 있다.” 이밖에도 춘향과 사령의 관계도 두 본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춘향과 기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원고사>에는 춘향과 기생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84장본>에서는 갈등 관계로 오인될 소지의 장면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를 춘향과 기생의 갈등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최재우, 앞의 논문, 125~155쪽.) 이렇듯 <춘향전>의 춘향과 기생의 관계에 관련된 논의는 구체적이며 총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다.

- 5) <춘향전>은 춘향의 신분에 따라 기생계, 비기생계로 구분할 정도도 춘향이 기생 혹은 기생 출신, 기생의 딸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작품에 따라 기생으로, 대비정숙한 것으로, 양반의 서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관으로 도입한 변학도가 기생점교 후 춘향을 찾고 수청을 강요한다는 설정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춘향이 선택한 신분보다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생이라는 신분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당대 여성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없는, 남성에게 의해 규정되는 타자였다. 이는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생의 경우 남성에게 종속되면서 동시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적 타자가 되는 것이다.
- 7) 김진영·김현주 외, 『춘향전 전집』 1~17, 박이정, 1996~2004. 『춘향전 전집』에는 총 105종의 춘향전 이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03종이 본 논의의 대상이다. 10권에 수록된 『김광순소장 낙장3장본 춘향전』은 서사를 파악하기에 분량의 한계가 있고, 17권에 수록된 『회동서관본 활자본 오작교』는 공통적인 춘향전 서사와 거리가 먼 내용이 담겨 있기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갈등의 양상이 확인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계열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작품의 주제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는 먼저 <춘향전> 전체에서 춘향과 기생의 관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그 속에서 인물 간 갈등의 관계를 확인하고 <춘향전>에 담긴 여성 인물 간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이후 작품은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다. 그 속에서 이들의 갈등이 당대 여성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2. 춘향과 기생의 갈등 양상

<춘향전>을 춘향과 기생들⁸⁾의 대면 혹은 대화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춘향과 기생의 관계 양상은 신관 변학도가 도입 후 춘향 초래령을 내려 행수가 거동하는 부분(A), 춘향이 초래에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고 행수가 이를 관가에 보고하는 부분(B), 춘향이 신관에게 현신하러 나서며 행수를 원망하는 부분(C), 수청 명령을 거절 후 형장을 맞은 춘향을 위로하기 위해 기생들이 모이는 부분(D) 이렇게 네 부분에서 확인되었고 그들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춘향전>을 통해 확인한 인물 간 갈등의 양상을 그 내용의 여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8) <춘향전>에 등장하는 기생은 행수기생과 여타의 기생으로 되어 있으나 행수와 다른 기생들의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등장하는 기생들이 개별 이름으로 춘향과 대면하는 구체적 장면이 없기에 구분 없이 기생이라고 칭한다.

9) 작품명은 『춘향전 전집』 수록 순서를 기준으로 명기함.

작품명	내용				작품명	내용			
	A	B	C	D		A	B	C	D
장자백정본 춘향가	o	x	o	o	박순호소장 90장본 옥중화	o	o	x	x
박기홍장본 춘향가	o	o	x	x	박순호소장 94장본 별춘향전	o	x	o	x
박순호소장 99장본 춘향가	o	x	o	o	박순호소장 151장본 옥중가인	x	x	x	x
박순호소장 68장본 춘향가	o	x	o	o	계명대도서관소장 52장본 춘향전	x	x	x	x
백성원장본 춘향가	o	x	x	o	김광순소장 28장본 별춘향가	x	x	x	x
신계효남장 춘향가	x	x	x	x	김광순소장 61장본 춘향전	x	x	x	x
신계효동장 춘향가	x	x	x	x	김광순소장 낙장30장본 춘향전	x	x	x	x
정광수장본 춘향가	o	o	x	o	박순호소장 49장본 춘향전	x	x	x	o
조상현장본 춘향가	o	o	x	o	박순호소장 55장본 춘향전	x	x	x	x
김소희장본 춘향가	o	x	o	o	박순호소장 59장본 춘향전	x	x	x	x
김여린장본 춘향가	o	x	o	o	박순호소장 91장본 춘향전	o	x	o	o
이선유장본 춘향가	o	x	o	o	한중연소장 35장본 춘향전	x	x	x	x
박동진장본 춘향가	o	x	o	o	한중연소장 59장본 춘향전	o	x	o	x
성우향장본 춘향가	o	o	x	o	한중연소장 77장본 춘향전	o	o	x	x
김연수장본 춘향가	o	x	o	o	한중연소장 90장본 춘향전	o	x	o	o
박봉술장본 춘향가	o	x	o	o	한중연소장 94장본 춘향전	x	x	x	o
안성관 20장본 춘향전	x	x	x	x	한중연소장 낙장18장본 춘향전	x	x	낙	낙
완관 26장본 별춘향전	x	x	x	x	한중연소장 낙장51장본 춘향전	x	x	x	x
완관 29장본 별춘향전	x	x	x	x	충주박물관소장 67장본 춘향전	o	x	x	o
완관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x	x	x	o	충남대도서관소장 42장본 별춘향전	x	x	x	x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o	x	o	o	충남대도서관소장 72장본 춘향전	o	x	o	x
경관 16장본 춘향전	x	x	x	x	고려대도서관소장 54장본 춘향전	o	x	x	x
경관 23장본 춘향전	x	x	x	x	고려대도서관소장 64장본 춘향전	o	x	x	x
경관 30장본 춘향전	x	x	x	x	고려대도서관소장 낙장16장본 옥중가인전	낙	낙	낙	낙
경관 35장본 춘향전	x	x	x	x	국립도서관소장 53장본 춘향전	x	x	x	o
경관 17장본 춘향전	x	x	x	x	하버드대 연경도서관소장 94장본 춘향전	x	x	x	x
동양문고본 춘향전	x	x	x	x	동국대도서관소장 69장본 춘향전	o	x	x	o
남원고사	x	x	x	x	일사문고소장 42장본 춘향전	x	x	x	x
동경대본 춘향전	x	x	x	x	김동옥소장 49장본 춘향전	x	x	x	x
상산본 춘향전	x	x	x	x	김진영소장 50장본 춘향전	x	x	x	x
도남문고본 춘향전	x	x	x	x	김진영소장 낙장30장본	낙	낙	x	낙
김동옥소장 48장본 옥중화	o	o	x	x	경상대도서관소장 75장본 별춘향전	o	x	x	o
김동옥소장 54장본 옥중화	o	o	x	x	이명선소장 춘향전	o	x	x	o
김동옥소장 89장본 옥중화	o	o	x	x	신학균소장 39장본 별춘향가	o	x	x	o
김동옥소장 낙장20장본 춘향전	낙	낙	낙	x	홍윤표소장 45장본 성춘향가	x	x	x	x
김동옥소장 낙장30장본 춘향전	x	x	x	o	홍윤표소장 154장본 춘향가	x	x	x	o
김동옥소장 낙장51장본 춘향전	o	x	x	o	김일근소장 26장본 성립전	x	x	x	x
김동옥소장 낙장70장본 춘향전	o	x	o	o	김중철소장 48장본 춘향전	x	x	x	x
김동옥소장 낙장75장본 춘향전	o	x	o	o	김중철소장 56장본 춘향전	x	x	x	o
김동옥소장 낙장83장본 춘향전	o	o	x	x	김중철소장 69장본 춘향전	x	x	x	x

사재동소장 51장본 춘향전	x	x	x	x	권영철소장 30장본 춘향가	x	x	x	x
사재동소장 52장본 별춘향전	x	x	x	x	보급서관본 활자본 옥중화	o	o	x	x
사재동소장 68장본 춘향전	o	x	x	o	회동서관본 활자본 증수 춘향전	o	o	x	x
사재동소장 70장본 춘향전	o	x	o	x	신문관본 활자본 고본 춘향전	x	x	x	x
사재동소장 87장본 춘향전	x	x	x	x	유일서관본 활자본 별춘향가	o	o	x	x
사재동소장 낙장56장본 별춘향전	o	x	o	x	조선서관본 활자본 특별무쌍 춘향전	o	o	x	x
사재동소장 낙장25장본 춘향전	o	x	o	x	대창서관본 활자본 절대가인 춘향전	o	o	x	x
사재동소장 낙장47장본 춘향전	x	x	x	x	신구서림본 활자본 옥중가인	x	x	x	x
박순호소장 48장본 춘향가	x	x	x	x	대성서림본 활자본 언문 춘향전	o	o	x	x
박순호소장 50장본 열녀춘향수절가	x	x	x	o	세창서관본 활자본 도상 옥중화	x	x	x	x
박순호소장 69장본 별춘향전	o	x	o	o	신명서림본 활자본 우리들전	o	o	x	x
박순호소장 74장본 춘향전	o	o	x	x					

<춘향전> 이본 103종 중 57종에서 춘향과 기생의 관계 파악이 가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낙장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몇 종을 제외하고는 주로 남원고사 계열의 작품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¹⁰⁾

2.1. 행수기생 거동

작품 속에서 춘향 초대를 위한 거동은 ①사령 거동 → 사령 재거동, ② 사령 거동 → 행수기생 거동, ③사령 거동 → 사령 재거동 → 행수기생 거동, ④행수기생 거동 → 사령 거동의 방식으로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뉜다. 이때 ②유형은 춘향에게 접대를 받은 사령이 온갖 변명으로 춘향의 초래 불응 사연을 신관에게 보고 하자 화가 난 신관이 행수기생에게 거동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③유형은 사령이 두 차례나 거동하자 이를 보다 못한 행수기생이 자진해서 나서는 부분이고, ④유형은 사령보다 행수기생이 먼저 춘향의 초대를 위해 거동하는 것으로 신관의 춘향 초래령

10) 네 부분의 내용이 남원고사 계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선 춘향이 기생으로 설정되어 있는 남원고사 계열의 내용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남원고사 계열의 작품에서는 인물 간 갈등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남원고사 계열에서도 인물 간 갈등의 양상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3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을 들은 호장이 춘향의 체면을 생각해서 행수를 통해 춘향모에게 미리 사정을 알려 현신하게 하려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렇듯 행수기생이 춘향을 부르기 위해 거동하는 이유는 각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춘향을 향한 행수기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대체로 유사하다.

행수기생이 나온다 행수기생이 나온다 손뼉을 땅 땅 두다리며 이 애 춘향마누라 정절부인 아기씨 수절부인 마누라야 너만헌 정절이 어디가 있으며 너만헌 수절은 다 하였다. 널로 하여금 육방이 손등 각청두목이 다 죽어난다. 들어가자 나오너라.

위 대목을 통해 수절을 이유로 신관의 초래에 불응하는 춘향이 못마땅한 행수기생의 심리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춘향을 부르러 거동하면서 행수기생이 보여준 이와 같은 언행은 무엇 때문일까? 아래는 행수기생의 거동 직전 상황들이다.

㉠ 스썩이 화를 너여 스령덜은 장방구리하고 행수기생을 즈바되려 좋아리 일곱 기를 썩려논이 시살을 썰고 나오것짜¹¹⁾

㉡ 잇썩 괴싱 아히들이 저의들거지 의논 왓 일기 춘향으로 우리들 소술이 아주 결단이 날 모양이로다 잇썩 괴싱 아히들거지 춘향 즈부로 나가던 거시였다¹²⁾

㉢ 그 때 행수기생이 어렸을 제 춘향모친(春香母親)이 행수기(行首妓)로 있었는데 잘못하면 좋아리도 때리고 이마박도 통기고 하였든 몽짐을 춘향 풀러히고 몽그리고 나가는다¹³⁾

11) <장자백 창본>, <이선유 창본>

12) <경상대도서관75장본>

㉠은 춘향을 불러오지 못하자 이미 거동했던 사령뿐 아니라 아직 거동하지 않은 행수기생조차 종아리를 맞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은 춘향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자진해서 거동하는 기생의 모습으로 ㉠과 같은 맥락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이후 춘향을 부르러 간 행수가 보여준 태도는 어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겠다. ㉢은 과거의 상황을 현재에 환기시켜주는 내용이다. 행수기생이 어린 시절 당시 행수기생으로 있던 월매에게 꾸중 들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춘향에게 되갚아 주려는 마음을 갖고 거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동 당시 행수기생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유로 제시된 내용이다.

㉠과 ㉡은 모두 거동 직전의 상황으로 행수의 거동태도가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감정 유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한다. 그러나 ㉢의 경우는 다르다. 행수기생과 월매, 춘향으로 이어지는 양상과 더불어 인물 간 유감의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 ㉡, ㉢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소 인물 간에 유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위에서처럼 상황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보이는 행수기생의 거동 태도는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이러틋 나올 적의 형수 기침 세월이가 비소하여 하난 마리 열여부
人 春香아 수절부인 春香아 네란 수절리 무어시며 네란 정절이 무어시아
드러가자 드러가자¹⁴⁾

㉢-② 형수기침이 영을 듯고 춘향 불으려 느온다 광할누를 지나 오죽교
얼너 지나 춘향집을 드러가며 비우셔 흥논 마리 여보쇼 춘향아씨 서울아씨
서울마마임 서울부인 사또게서 불으시니 어서 밧비 드러가세¹⁵⁾

13) <정광수 창본>, <조상현 창본>

14) <한중연59장본>, <박순호94장본>, <사재동70장본>, <사재동56장본>, <사재동25장본>

㉠ 행수기싱 나가면서 춘향의네 으기씨 정절 부인 마누란임 수절할 마음
잇슬진던 구관수도 기실 적의 도안의 일흠을 파지 일흠은 그져 두고 정구불
춤 하야신이 관장 츠변 이리 하미 도고마한 너 혼나로 六方官속 드 죽겟드
어서 밧비 나셔거라¹⁵⁾

㉡ 행수기싱 분부하야 춘향 잡부려 나가는데 <41-뒤>춘향이 너난 옷잔
계집으로 티도가 그리 높파 이방임도 죄을 입고 슈로청슈 밧를 맛고 동관이
다 죽기다 잡말 말고 드러가즈¹⁶⁾

㉠을 보면 앞서 행수기생이 거동하면서 “너만헌 정절이 어디가 있으며 너만헌 수절은 다 하였다.”고 하는 말에 담긴 구체적 의도가 비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직접 ‘비웃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으나 ㉠의 ‘수절할 마음이었다면 기안에서 이름을 파지 그랬냐’, ‘조그마한 너 하나’ 때문이라는 말과 ㉡의 ‘태도가 높’다는 표현에서도 춘향의 수절을 조롱하려는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듯 춘향을 부르러 행수기생이 거동하는 부분을 통해 춘향과 기생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물 간에 유대적, 호의적 관계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수절하는 춘향을 비웃는 행수기생의 태도를 통해 행수기생이 춘향을 향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양상만 확인할 수 있었다.

2.2. 춘향의 초래 거절과 행수 보고

신관의 초래령을 받고 행수기생이 춘향의 집에 방문했을 때 춘향이 신관의 초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행수기생은 이를 관가에 보

15) <박기홍 창본>, <보급옥중화>, <조선특별>, <대창절대>, <대성언문>, <회동중수>, <신명우리들>, <유일별춘향>, <한중연77장본>, <김동옥48장본>, <김동옥54장본>, <김동옥89장본>, <김동옥83장본>, <박순호74장본>, <박순호90장본>

16) <고려대도서관54장본>

17) <고려대도서관64장본>

고한다. 이러한 내용은 18종의 이본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행수기생이 거동하였을 때 춘향이 보인 반응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㉔ 춘향(春香)이 이 말을 듣고 보선발로 나오면서 아이고 행수형님(行首兄任) 오신니까 사람을 부르면 조용이 부르제 화제가락 솟전치듯 땅땅벌러서 부른단 말이요 여보 형님 양반(兩班)만 수절(守節)이 있고 기생(妓生)은 수절이 없다는 말이요 여보 형님 나를 생각하여 건너가오 건너가오¹⁸⁾

㉕ 춘향 변식<28-뒤>뒤왈 사또게서 불으시니 위민지부모시라 불으시면 갈 터이나 너가 괴칭이 안인 바의 불은드고 갈 슈 있나 병논디 수삭이라 출립힐 슈 업섯스니 횡슈형이 드러가서 춘향은 병이 드러 거의 죽게 되얏드고 글노만 말을 호오

㉔를 보면 춘향은 행수기생의 방문에 버선발로 맞이한다. 이는 춘향이 행수를 반기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앞서 행수가 보여준 태도와는 달리 춘향은 행수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수절을 비웃는 행수기생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드러낸다. 춘향은 행수기생에게 신관의 초래에 응할 수 없는, 혹은 응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나를 생각하여”라는 그간의 관계에 호소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힐 뿐이다.

㉕는 18종 중 15종에 있는 내용으로 ㉔에서와는 다른 춘향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자신을 비웃으며 거동하는 행수기생을 향해 얼굴색을 바꾼 춘향은 ㉔에서처럼 행수기생을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다시 확인시켜 주며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초래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유까지 덧붙여 초래를 거절하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8) <정광수 창본>, <조상현 창본>, <성우향 창본>

그러나 ㉒와 ㉓만을 가지고 인물의 관계를 갈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령이 거동했을 때 춘향의 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사령이 거동했을 때 춘향의 반응이다.

㉒ 춘향이 바린 변식허난 말이 수다한 귀싱 중에 나올 흐필 찾다 말가 물
광유주어든 간 티로 서울손양 안카당 도라가서 관정 말삼이나 잘 흐와 무사
키 흐여주면 그도 또한 은공이라 칭병을 구디허이 인정소지에 참아 엇지 팔
세허리오¹⁹⁾

㉓ 춘향이 발서 저 잡으러 온 줄 알고 문을 열고 다투라 김번수며 이번수
의 손을 잡고 이리 오소 이리 오소 이번 신연길의 노독이나 안이 나 겨신가
도련임 서간 흐 장도 안이 오딘가 방으로 드러 안치고 주찬으로 디접허고
온 연고를 무른디 신관 스또 분부 모시고 너를 잡<15-뒤>부러 외쁘되 너
를 보니 잡아갈 길 전이 엇다 흐디 춘향이 케를 열고 돈 닷 양을 너여주며
왈 가다 흐 씨 주취나 흐고 가소²⁰⁾

㉒를 보면 사령이 거동하자 춘향은 사령에게 관에 들어가 잘 말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을 은공으로 여기겠다고 ‘칭병’을 거절의 이유로 든다. 얼굴색을 바꾸고, 병을 이유로 거절한다는 점은 ㉒와 같지만 춘향의 발화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㉒는 거동한 사령을 맞이하는 춘향의 반응으로 가장 많은 이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춘향은 달려 나가 손을 잡고 맞이하고 주안을 대접하거나 뇌물을 건넨다. 초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령을 회유하는 모습을 통해 초래를 거절하려는 춘향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춘향의 반응은 거동하는 인물이 사령이나, 행수기생이나에 따

19) <동국대도서관69장본>

20) <완판33장본>

라 차이를 보인다. 물론 행수와 춘향이 지속적인 교류 관계에 있었다면 굳이 구체적 설명이나 접대, 뇌물 등을 동원한 회유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행수기생이 보여준 태도(㉔, ㉕, ㉖)를 보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은 춘향 집에 다녀간 사령과 행수기생이 관가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㉔-① 저 사령 도라와 알유되 추형 부르로 갓삽던이 춘향이 도련임 직별한 후 상사병이 지피 드러 식음을 전폐하고 호정불출 흡기로 디령치 못하엿난이다 샷도 디로 왈 무어시 엇자 엇지어 황송하엿이다²¹⁾

㉔-② 드러가 알외되 춘향 잡부러 갓던 사령이웁더니 알외나니다 춘향을 잡부러 가삽더니 어제 죽어 그적과 초빙하엿삽더니다 또 혼 놈 알외라 호령 하니 또 혼 놈이 다시 알외되 춘향의 집의 가니 춘향이 돈 닷 양과 술을 만이 주옵기로 먹삽고 차마 잡아오지 못하와 그져 오다가 그 돈으로 술 사먹고 직전이 드만 양 두 돈 오 푼이오니 이 놈이나 사또 씨시고 소인의 톱으로 그만저만 마옵소서²²⁾

㉔ 【안의리(安意裏)】 행수기생(行首妓生)이 춘향(春香)말에 짝 질러 걸으로 허는 체 오 참 그러고 말고 내가 들어가서 안목일을 조치(措置)하고 동생한테 놀러오마 허고 호장(戶長)으게 들어오드니 춘향을 먹어대는데 건너마을 박목수 대뜸먹듯 허는데 춘향(春香) 부르러 갔다가 망신(亡身)만 하였소 사또(使道)가 부르면 사령(使令)이 왔을 터인데 왜 자네가 왔느냐고 하기로 호장님이 부르시드라고 하니 사령(使令)으게 참여갔으면 갔지 호장 영으로는 못가것다고 딱 잡아 떼웁디다

21) <동국대도서관69장본>

22) <완판33장본>

㉮는 사령이 관가로 돌아가 춘향이 초래에 응할 수 없는 사연을 보고 하는 내용이다. ㉮-①에서 사령은 춘향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관에 알리고 있고, ㉮-②에서도 ‘죽어’, ‘초빙’ 등의 사연으로 핑계를 만들어 주거나, 사실대로 고하면서도 사또를 만류하는 것으로 춘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는 행수기생이 관가에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본 18종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행수기생은 춘향이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초래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앞에서는 그렇게 전하겠다고 하며 춘향을 향해 ‘동생’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속내는 말과 다르다. 행수기생은 춘향의 언사에 ‘딱 질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렸다는 표현은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춘향의 태도에 기가 눌렸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관가에 돌아가 춘향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 보고하는 행수기생의 모습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초래 거절 의사를 밝히는 춘향의 태도가 사령과 행수기생에게 각각 달랐던 것처럼 관가에 보고하는 사령과 행수기생 역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춘향과 행수기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춘향의 행수 원망

행수기생이 신관의 초래령을 가지고 집에 방문하자 춘향이 거절하지 않고, 바로 현신을 위해 나서는 데서 보이는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행수기생 거동 ②유형 뒤에 이어진다. 21종의 이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성임 성임 횡수 성임 사람의 팔세울 그리 마소 개리는 덕덕 횡수며 너리야 덕덕 춘향인가 인싱일사도무사제 한 번 죽계 두 번 죽나 이리 빗틀 겨리 빗틀²³⁾

㉑ 여보쇼 횡슈 형님 나하고 무삼 혐우요 나가 설영 잘못하는 일니 잇시면 너의 집의 날려와게 꾸중을 하는게 올체 삼문티로가 어디라고 화지가락 웃마드 트듯기 그져 빙<52-앞>빙 틀어 말을 하는가 그만두쇼 들어감식²⁴⁾

㉒ 춘향이 하는 말이 여보 행수 자네 잘못하네 자네 조고만 하였을 썬 우리 어머니가 남원골서 등내등내 수청으로 잇슬 적에 자네를 다려다가 수년을 길너 저가치 장성하였거든 내가 설영 잘못하면 은근이 말을 할 거시지 삼남대로변에 열여부인 정절부인 화저까락 웃마대 틀듯 뺑뺑 틀어 말을 하니 하나 죽지 둘이 죽나 드러가자면 드러가세²⁵⁾

㉓ 춘향이 기가 막혀 너머 그리 치출 말게 저승치사 강임도령 사병인을 짓촉흔들 이에서 더할순가²⁶⁾

㉑에서 춘향은 행수기생이 자신의 수절을 두고 비웃자 행수기생이 자신을 괘시한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서운한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㉒는 대로에서 큰소리로 자신을 비아냥대는 행수기생의 태도에 대한 못마땅한 춘향의 심사를 담고 있다. ㉒에서 춘향은 행수기생과 모친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면서 ㉑의 혐의 없음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보 행수 자네 잘못하네’라는 하대와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춘향과 행수의 관계가 ㉑, ㉒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㉓에는 구체적으로 서운한 이유 없이 단지 자신을 다그치는 태도를 지적하며 못마땅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거동 태도에 대한 원망

23) <완관84장본>, <한중연90장본>, <박순호69장본>, <장자백 창본>

24) <박순호99장본>, <박순호91장본>, <김소희 창본>, <김여란 창본>, <김연수 창본>, <박순호68장본>, <김동욱70장본>, <박봉술 창본>

25) <이선유 창본>, <박동진 창본>, <김동욱75장본>

26) <충남대도서관72장본>, <한중연59장본>, <박순호94장본>, <사제동70장본>, <사제동56장본>, <사제동25장본>

이 행수를 향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래는 사령의 거동과 춘향이 현신을 나가는 장면이다.

㉔ 방울이 썰녕 스령 예의 춘향 불너디리라 (중중머리) 굴노스령이 나온다 스령굴노가 나간다 산슈털 병거지 남일광단의 안을 올려 날날이 용쓰를 싹 붓치고 구정디뜰의 절녕거리고 절녕절녕 나가며 서로 부르면서 나간다이 익 짐번슈야 워야 박피도야 무엇할 네 걸이엿구나 걸니여 게 뉘기가 걸니여 춘향이가 걸니엿다 올타 그 재미붓꼬 발기를 갈 연이 양반셔방을 흐엿싸고 우리를 보면 초리로 보고 텅헤만 잘잘 스을며 교만이 너머 만탄이라네나 니나 일본 스정 두난 놨은 재미 오금의 풀칠흐즈 남디문 밧 다텔나 영쥬각을 다달나 오작교 다리여 옷쪽 셔 아나 옛자 이 익 춘향아 부르난 쇼릭 원근산천니 썸드럭케 들닌다 나오느라 나오느라 스또 분부가 지엄한이 짓체말고 나오느라²⁷⁾

㉕ 춘향이 하릴없어 사령 뒤를 따라가는데, 【진양】 사령 뒤를 따라간다. 신세자탄 우난 말이,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 삼태육경, 좋은 집이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내 신세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인고? 국곡투식허였나? 부모 불효를 허였는가? 형제 있어 불목을 허였는가? 살인 강(도)죄 아니어든 이 지경이 웬일인고?”²⁸⁾

㉔에서 사령은 춘향의 집으로 가면서 춘향의 도도함과 그간 자신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아울러 행수기생이 그랬던 것처럼 큰소리로 춘향의 이름을 부르며 요란하게 거동한다.

㉕는 춘향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령을 따라 사또에게 현신하러 가는 중에 있는 춘향의 탄식 내용이다.

㉔와 ㉕를 통해서도 역시 사령과 행수를 대하는 춘향의 반응이 다르다

27) <고려대낙장16장본>, <신재효 동창>을 제외한 전체 이본에 내용이 있다.

28) <조상현 창본>, <정광수 창본> 등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행수거동이 행수 원망으로 이어진 ㉠, ㉡, ㉢, ㉣와는 달리 ㉤의 뒤에는 ㉠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령을 접대하며 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춘향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반해, 행수거동 춘향 현신 사이에는 ㉤의 자탄 대신 행수를 향한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춘향은 자신과 행수기생 간에 혐의의 고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사한 정황 속에서 사령과 행수기생을 향한 춘향의 발언 여부, 태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 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4. 기생의 춘향 위로 및 구호

춘향은 수청을 거절한 후 형장을 맞는다. 이때 기생들이 모여 춘향을 위로하고 구호하는데 이 부분은 34종의 이본에서 볼 수 있다. 34종의 이본은 기생들이 모여 춘향을 위로와 구호하기에 애쓰는 내용만 있는 6종과, 기생의 춘향 위로 및 구호 뒤에 한 기생이 나서며 춘향의 고난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노래하며 춤추는 대목이 덧붙여 있는 28종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여러 기싱 산월아 옥난아 청심환 이리 너여라 급후다 다신 물 써오느라 중임이는 덕접 들<27-앞>고 업시 오락가락 계심이는 청심환 맛작 잡고 비죽비죽 우는 눈물 권분이는 숙갈 들고 춘향 입의 써 는넌디 칠선이는 붓 치질과 공형드른 들날날낙 부디 찬물 권치마마 중장삿틱 죽난나라 횡슈기싱 왔다갔다 횡슈군관 오락가락 너무 과이 현화 마라 한참 이리 덤병일 제²⁹⁾

㉡ 조방청 기싱덜이 춘향이 죽어싼 말들 듯쇼 서로 부르며 나오난디 장관이엇싸 (중중머리) 여러 기싱더리 나온다 씨리 씨리 동무지여 서로 부르

29) <김동옥낙51장본>, <박순호50장본>, <박순호49장본>, <한중연94장본>, <신학균39장본>, <홍윤표154장본>.

며 나온다 이 익 금주야 워야 이 익 죽엽아 워야 춘향이가 밭을 밟고 거이 죽게 되었판다 익고 이게 원말린야 어서 가고 즈로 가즈 삼문잔을 당도호여 각심으로 부르난디 익고 형님 익고 동심 춘향각씨 엇더한 기싱은 배랑 알망 굿게 부르느라고 익고 서울집 연약한 춘향몸의 형문삼치 웬일린가 정신치 리쇼 습절이 전이 업고 스지여 퍽이 업네 상황을 갈고 청심턴 디레라 한참 이리 분주할 제 뜻박고 엇션 기싱 올다가 우시면서 두 활기 썩 버리고 춤추면서 노리한다 얼씨고나 절씨고 지와즈 졸씨고 여러 괴싱덜 어이업씨 에라 이 몫실 연아 나난 엇전 심스로서 춘향이 밭을 밟고 죽을 지경 되었난디 춤추기난 웬일인야 네가 살미들닌 년 안이나 <40-뒤>제 기싱 디답호되 너그덜 모르리라 경상도 진주셔난 의암부인이 나져시고 평양은 월천씨 히셔의 난 동선씨 충청도 청주셔난 미월이가 나져시고 절나도 남원쌍의 열녀 춘향이 나져션이 노방의 정문세고 우리 교방청의 선관갑이 삼겨션이 엇지 안이 조흔손야 얼씨고 조흔씨고 지와즈 졸씨고 한참 이리 야단일 제

①와 ②의 앞부분에서 춘향 때문에 모인 기생들의 모습은 대체로 동일하게 그려진다. 춘향의 수난을 안타까워하고 울며 약을 찾아 구호하기에 바쁘다. 그런데 ③에서 한 기생이 출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떤 기생이 들어오면서 수절을 지키기 위해 수난을 감수하는 춘향의 일을 잘된 일이라며 흥겨워하는 것이다. 이를 본 여러 기생들은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춘향을 보고도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느냐며 그 기생을 나무라지만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진주 의암부인, 평양 월천씨, 해서 동선씨, 청주 매월이 등을 예로 들며 남원에도 춘향으로 인해 열녀가 나왔다는 것이다. 열녀가 나와서 교방청에도 현관감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좋은 일이 아니냐며 한참을 즐거워한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기생이 한참 이렇게 했다며 화제가 전환되지만 <김동욱30장본>에서는 뒷이야기가 조금 더 있다. 기생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다른 기생들 역시 함께 즐거워하면서 모두 춤을 추는 장면이 그것이다.³⁰⁾

그렇다면 형장 맞은 춘향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기생들의 모습과 춘향

이 열녀가 된 것이 남원 교방청에는 좋은 일이라며 춤추는 기생들의 모습 속에서 춘향과 기생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춘향을 위로, 구호하는 기생들의 모습에서 춘향을 향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심리를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유대적, 공감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춤추는 기생의 발언을 통해 결국에는 그 관계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춘향이 고통을 견디며 수절하여 열녀가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남원 교방청에 속한 다른 기생들에게는 명예로운 일이기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생들은 수난을 당하는 춘향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기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현실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춘향과 기생이 공존, 공감할 수만은 없는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된 인물들의 입장 차이는 인물들의 관계를 유대보다는 갈등에 가깝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3. 갈등을 통해 본 여성 층위³¹⁾의 문제

앞에서 춘향과 기생의 관계 양상을 확인한 결과 인물들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들의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은 <춘향전> 전체 서사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이후부터 이도령의 급제 후 재회 전

30) “울니 남안골 노방청의 열여 춘향이가 느껴서 선관객이 될 말이면 울이도 흥기 동유가 되어서 천류의 만덕하고 울이 기침들 일흠이 명정전후홀 테인이 일현 조흔 일이 어딤 잇실이요 호고 춤을 추며 지아자자가 호쉴시고 호며 춤을 추이 열여 기침들이 그 말을 듯던이만은 모든 기침이 모다 춤을 벌이느구나”

31) 본고에서 말하는 ‘층위’의 개념은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계층을 뜻한다. 당대 사회는 ‘남존여비’라는 의식을 통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분명한 층위가 존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모두 동일한 층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층위에 놓인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며느리일지라도 중부냐 아니냐에 따라 그 층위가 구분되는 것처럼 말이다.

까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전과 재회 후에는 인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만한 요소가 없거나 갈등을 표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³²⁾ 그렇다면 춘향과 기생이 갈등의 중심에 이도령이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이유는 우선 행수기생의 거동 시 발화를 주목할 수 있다. 행수기생은 춘향을 향해 ‘수절 부인’, ‘정절 부인’, ‘서울부인’이라 칭한다. 행수기생이 이러한 호칭을 사용한 이유는 춘향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수절부인이라 부르면서도 이어서 너 만한 수절은 다하였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절부인, 정절부인이라 부르며 춘향을 비하하는 것은 행수기생이 춘향의 수절을 문제 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춘향의 수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기 때문이다. <고려대도서관54장본>에서 행수기생은 춘향을 향해 수절할 마음이 있었다면 구관 사또가 계실 적에 기안에서 이름을 파지 왜 그냥 두었느냐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생이 수절을 하니 수절하는 춘향의 태도를 두고 ‘도도’³³⁾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사랑 대목에서는 볼 수 없던 기생의 이런 발화와 태도가 이별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춘향이 이도령과 이별 후 수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춘향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이유로 기생점고에도 불참하고, 신관의 초래에 응하지 않는 등 다른 기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32) 물론 갈등 양상이 드러난 시점을 두고 내용상 전반부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사랑에 집중하기 위해 굳이 춘향과 기생의 갈등을 서술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은 상대방의 공고성이 틈을 보이거나 해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표출된다는 속성이 있다. 비록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표출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표출 시에는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33) “춘향이 너난 옷잔 계집으로 티도가 그리 놀파 이방임도 죄을 입고 슈로청슈 밋를 맛고 동관이 다 죽기다 잡말 말고 드러가즈” <고려대도서관64장본>, “들어가즈 들어가즈 엿서 밧비 들어가즈 너 아무리 도고흐들 뒤 영이라 거영홀가” <경상대도서관75장본>, “그 연이 도고흐야 양반 서방호엇닷고 티까리기 잘잘 썩썩 동무 썩이 두 손벽을 쌍쌍 치면 수절 부인 정절이씨 어서 갑세 밧비 갖세 옷줄옷줄 나 올 적계” <동국대도서관69장본>

기생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기생은 ‘노류장화’라 불리며 누구의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누구의 것이 되기 힘든 하층 신분의 여성이었다는 점에서도 내재적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기생들이 동류였던 춘향의 수절을 바라보며 동경, 질시 내지 상대적 박탈감 등의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물론 춘향이 수절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춘향의 상황이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도령이 급제하여 남원으로 돌아온 후로는 기생과 춘향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드러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통해 기생들이 춘향을 두고 갈등했던 이유가 신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춘향 역시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갈등한다. 이본에 따라 춘향은 기생으로, 기생이었다 대비정숙한 것으로, 기생 출신 월매에게서 태어난 양반의 서녀 등으로 그 신분 설정이 이뤄졌지만 결국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춘향은 기생이면서 기생이 아닌³⁴⁾ 존재이다. 작품에 따라 춘향은 자신을 기생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기생이 아니라며 기생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춘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녀를 기생으로만 본다. 이는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에게 반한 후 방자로 하여금 초래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춘향을 대하는 기생들의 태도, 결정적으로 신관 변화도의 수청 요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향에게도 이도령과 수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의 처음 만남은 양반 도령과 기생의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혼인 약속과 사랑의 과정을 통해 이도령에게 춘향은 더 이상 춘향은 기생이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도령이라는 존재와 수절이라는 과정은 갈등 속에 있던 춘향에게 정체성을 새롭게 확고하게 정립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해 춘향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4)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현 편, 서광학술자료사, 1994, 15~22쪽 참조.

당대 사회에서 자아 및 정체성의 개념은 지극히 사회중심적인 것으로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역할 정체성이다. 그것은 인간,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가 인정한 중요한 타자들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³⁵⁾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춘향의 자기 발전은 바로 이도령과 수절에 의해 가능해지며, 같은 이유로 기생은 춘향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도령의 존재와 수절의 문제로 춘향과 기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을 더 이상 동류가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향과 기생은 여성이면서 기생이라는 이중적 신분 제약을 지닌 존재들로 이중적 타자에 해당한다. 타자로만 존재했던 당대 여성과 기생의 가치는 일생 동안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누구와 관계에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어떤’ 남성과 관계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어떤’이란 1차적으로는 ‘특정’, ‘고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2차적으로는 ‘어느 위치’ 즉, 사회적 역할 정체성이 무엇인 남성이나 하는 점이다. 여성의 운명은 어떤 남성과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 질투, 동경에 의한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여성이면서 기생이라는 이중적 하위 계층의 문제로 파악해야만 갈등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춘향전〉 담론에 접근할 수 있다.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결국 여성 간 갈등의 문제이면서, 여성이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 ‘어떤’ 남성의 문제인 셈이다. 이도령으로 대변되는 ‘어떤’ 남성에게 의해 춘향과 기생은 갈등 관계에 놓이지만 이도령의 급제를 계기로 여성 간에는 층위가 분명히 구분되고 인물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 남성에게 의해 구분지어진 그들 사이의 층위는 여성의 힘으로 전복 또는 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5) 신경아, 『유교 사회 여성의 노동경험과 정체성』, 『여성 ; 역사와 현재』, 박용옥 엮음, 국학자료원, 2001, 583쪽.

이러한 여성 층위의 문제는 <반씨전>, <이춘풍전>, <김인향전>, <정수정전> 등 여성 간 갈등의 서사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성 간 갈등은 주로 고부, 동서, 처첩, 계모와 전실 자식 간 등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포착되었다. 이때 갈등은 특정한 인물 및 인물군이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들 사이의 화해와 용서보다는 일방적 처벌이나 승리 혹은 문제에 대한 외면이나 무시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³⁶⁾ 그러면서 여성이 갖게 되는 갈등 및 갈등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외면, 간과되고 여성 간 유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제시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경쟁의 기제로만 작용하였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내 여성 간 갈등 해결은 주로 ‘시어머니’, ‘종부’, ‘조강지처’, ‘본처’의 긍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며느리’, ‘후처’, ‘첩’, ‘계모’ 등은 속죄양³⁷⁾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통제, 유지되면서 여성이 겪는 갈등을 두고 그 원인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고 남성으로 대표되는 지배층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승패와 선악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다뤄진 것이다.

그러므로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형장 맞은 춘향을 기생들이 위로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되고 그들의 갈등이 이후 사라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갈등의 해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단지 춘향과 기생들의 서로 다른 현실적 상황을 확인시켜주거나 좀 더 나아간다면 춘향의 처지가 안타까우면서도 동정할 수만은 없는 기생들의 양가적 심리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춘향을 위로하고 열녀가 되는 것을 칭송하면서도 ‘현관감’이 생겨 자신들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이 기생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상황으로 인해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 중 어느 누구도 벌을 받거나 승리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분의 내용을 갈등의 해결로 보

36) 김현주, 『가족 갈등형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40쪽.

37)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지성사, 1988, 85쪽.

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도령이 기생에게 춘향의 해칼을 명령하는 것에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어사의 해칼 명령은 총 57종³⁸⁾의 이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군로사령 등에게 해칼을 명령하는 것이 20종,³⁹⁾ 기생에게 해칼을 명령하는 것이 37종에 해당한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37종 가운데 32종⁴⁰⁾에서 어사가 기생에게 입으로 춘향의 칼머리를 물어뜯으라고 명령한다는 점이다.⁴¹⁾ 이에 기생들은 이와

38) 앞서 2장에서 춘향과 기생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남원고사 계열에서는 춘향과 기생의 직접적인 갈등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남원고사 계열의 작품 대다수에서 어사가 기생에게 입으로 춘향의 칼머리를 뜯어내라고 명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원고사 계열에서는 춘향과 기생이 갈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었을 뿐, 이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39) “춘향을 끌어들어 옥죄인 춘향 올렸오. 해칼하여라. 해칼하였오.”(〈장자백 창본〉, 〈박순호99장본〉, 〈백성환 창본〉, 〈신재효 남창〉, 〈정광수 창본〉, 〈조상현 창본〉, 〈김소희 창본〉, 〈김여란 창본〉, 〈성우향 창본〉, 〈박봉술 창본〉, 〈완관33장본〉, 〈김동욱51장본〉, 〈박순호49장본〉, 〈박순호91장본〉, 〈한중연35장본〉, 〈충주박물관67장본〉, 〈동국대도서관69장본〉, 〈김동욱49장본〉, 〈이명선소장본〉, 〈김종철48장본〉)

40) “어스(御史)스도계 알외니 스되 기싱(妓生)에게 분부(分付)흐디 앓가 노름 노든 기싱 다 잡아다가 춘향의 쓴 칼을 저의 이로 물어뜯어 즉각(卽刻)으로 벗기라 (중략) 어식(御史) 호령(號令)흐디 요괴로운 요년들이 무슨 잔말을 흐느니 칼을 밧비 벗기라 호령(號令)이 싱풍(生風)흐니 기싱(妓生)들이 겁(怯)을 넘어 망스(忘死)흐고 뜻을 적에 못기들이 썩을 썩듯 썩어닐제 이썩리도 썩지는 년 입시웁도 터지는 년 불싸기도 썩러진 년 터야리도 버셔진 년 죽을 힘을 다 드러서 즉각(卽刻)에 칼 벗기니”(〈안성관20장본〉, 〈완관26장본〉, 〈완관29장본〉, 〈경관16장본〉, 〈경관17장본〉, 〈경관23장본〉, 〈경관30장본〉, 〈경관35장본〉, 〈동양문고〉, 〈남원고사〉, 〈동경대〉, 〈상산본〉, 〈도남문고〉, 〈사제동51장본〉, 〈사제동52장본〉, 〈박순호94장본〉, 〈계명대도서관52장본〉, 〈김광순28장본〉, 〈김광순61장본〉, 〈김광순낙39장본〉, 〈박순호55장본〉, 〈충남대도서관42장본〉, 〈충남대도서관72장본〉, 〈고려대도서관54장본〉, 〈하버드94장본〉, 〈김진영50장본〉, 〈홍윤표45장본〉, 〈홍윤표154장본〉, 〈김일근26장본〉, 〈김종철69장본〉, 〈권영철30장본〉, 〈신문고본〉)

41) 기생에게 단지 해칼 명령만 하는 이본은 〈사제동70장본〉, 〈사제동87장본〉, 〈사제동낙56장본〉, 〈한중연59장본〉, 〈신학균39장본〉으로 5종이다.(“으스도 분부흐되 칼을 일변 벅기라 흐신이 지비갓튼 기싱들이 일시의 달어들어 춘향 썩 칼을 벅

턱이 빠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명령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어사가 굳이 이런 식으로 기생에게 춘향의 해갈을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사와 기생의 대면은 변학도 생일잔치에서 이뤄졌다. 기생이 어사의 행색을 비웃고 조롱하는 권주가를 부르기는 했으나 어사로 출도하여 이를 문제 삼아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고 보는 것은 어사의 행실로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왜 하필 춘향의 칼머리인지에 대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단서는 바로 춘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닌 춘향의 칼머리를 입으로 뜯어 기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춘향과 갈등한 기생을 향한 일종의 벌인 셈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춘향과 기생의 갈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춘향의 승리로 봉합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듯 어사에 의해 춘향이 갈등에서 승리하면서 춘향과 기생은 서로 그 층위가 구분되는 여성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문제는 다시 <춘향전>의 주요 갈등인 춘향과 변학도의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춘향전>의 주제는 크게 사랑, 정절, 신분갈등, 관민갈등, 인간해방 등으로 집약⁴²⁾할 수 있는데, 주제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중심에는 변학도의 수청 요구와 춘향의 수절로 요약되는 두 인물의 갈등과 그 해결이 자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는가이다. 춘향과 기생의 갈등이 이도령의 급제를 통해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학도와 춘향의 갈등도 이도령의 급제로 해결된다. 표면적으로는 춘향과 변학도의 대결에서 춘향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춘향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춘향이 수절 의지로 변학도에게 끝까지 항거하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그것이 사랑과 정절, 신분 갈등의 극복 등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도령의 급제와 신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⁴³⁾

긴이")

42) 신동훈,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적 변모양상」, 『관소리연구』 제8집, 관소리학회, 1997, 213~260쪽.

43) “<춘향전>의 갈등은 변학도를 징치하고 춘향의 수난이 끝나는 과정을 지나, 몽룡이 춘향의 신분 정체성을 공인하는 순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다.”(이상일, 『춘향

<춘향전> 전체 서사에서 춘향과 기생의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이들의 갈등이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서사적 갈등도 아니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여타 보조인물들이 그러하듯이 기생 역시 춘향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동시에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춘향과 기생의 관계를 통해 기생인 춘향이 선택한 수절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품은 다른 기생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결국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기생의 갈등과 그 해결의 과정은 여성이 누구의 타자이냐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갈등 관계에 놓인 여성들이 남성에게 의해 승리자와 패배자로 구분되고 이를 통해 여성을 다시 층위화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남성과 대결하는 여성의 뒤에서도 그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남성에게 종속되어야만 그 가치가 발현될 수 있던 당대 여성의 문제까지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춘향전>에서 춘향의 기생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작품에 춘향 외에도 다수의 기생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춘향전 전집』에 실린 103종의 작품을 대상으로 춘향과 기생의 관계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57종의 작품 속에서 신관의 춘향 초래령을 받아 행수가 거동하는 부분(A), 춘향이 초래를 거절하고 행수가 이를 관가에 보고하는 부분(B), 신관에게 현신하러 나서는 춘향이 행수를 원망하는 부분(C), 수청 거절 후 형장을 맞은 춘향을 위로하기 위해 기생들이 모인

의 신분 정체성을 통해 본 이몽룡의 인물 형상,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493쪽.)

부분(D)을 통해 춘향과 기생이 갈등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A에서는 춘향을 향해 행수기생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 정황 및 이유, 표현 등으로 통해 드러났다. B에서는 행수기생에게 초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춘향의 태도를 통해서 기생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춘향의 초래 거절의 사유를 춘향을 폄하시키는 이야기로 바꿔 관가에 보고하는 행수의 모습을 통해서 인물 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에서는 발언의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갈등 상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나 사령의 거동에 의해 현신할 때는 행수기생이 거동하여 현신할 때와 달리 사령을 원망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인물들의 관계가 갈등 속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D에서 기생들이 모여 춘향을 위로하고 구호를 위해 애쓰는 내용과 함께 춘향이 열녀된 것이 기생인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노래하는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 것을 통해 춘향과 기생 간의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된 작품 속 여성 인물 간의 갈등은 신분에 원인을 두고 있었다. 기생은 춘향이 기생이면서 기생이기를 거부하고 수절하는 점을 문제 삼았고, 춘향은 스스로 기생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생으로 인식하는 기생들의 태도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그들의 갈등이 기생이면서 여성인, 이중적 타자라는 신분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대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존재로 인식,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남성이어야 했는데 춘향은 기생들과 달리 이도령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한 타자의 자리를 획득하였다. 그로 인해 기생이었던 춘향은 다른 기생들과 층위가 갈리는 기회를 얻고 인물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춘향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춘향과 기생의 갈등과 그 해결의 양상은 춘향과 변학도의 그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 역시 결국 급제한 이도령에 의해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춘향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승리가 오롯이 자력의 결과는 아닌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향전〉에서 포착되는 춘향과 기생의 갈등은 여성 간에 존재하는 층위의 문제를 확인시켜주며 동시에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문제까지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의가 〈춘향전〉 전반에 나타난 춘향과 기생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각 계열별 양상과 차이를 비롯하여 면밀히 고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진한 부분은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진영 · 김현주 외, 『춘향전 전집』 1~17, 박이정, 1996~2004.

2. 단행본

김병국, 김대행, 김진영, 정병헌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4, 15~22쪽; 258~315쪽.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16쪽; 25쪽.

박용옥 엮음,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583쪽.

성낙희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한국문학과 사상』, 국학자료원, 2005, 216쪽; 218~219쪽.

이현재, 『여성주의적 정체성 개념』, 여이언, 2008, 11쪽.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지성사, 1988, 75쪽; 85쪽.

진은진, 『한국문화의 자장과 서사문학』, 보고서, 2008, 150~153쪽.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 고전문학 속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02~

103쪽.

3. 논문

- 김현주, 『가족 갈등형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40쪽.
- 신동훈, 『<춘향전> 주제의식과 역사적 변모양상』, 『관소리연구』 제8집, 관소리학회, 1997, 213~260쪽.
- 신선희,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언술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2집, 장안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417~439쪽.
- 신원선, 『<춘향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2000년 이후 영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52집,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2, 1~34쪽.
- 이상일, 『춘향의 신분 정체성을 통해 본 이몽룡의 인물 형상』,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469~498쪽.
- 이은희, 『춘향전의 갈등 구조』, 『이화어문논집』 8, 이화여대, 1986, 427~439쪽.
- 최재우, 『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 간의 특성 차이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125~155쪽.
- 한규섭, 『춘향전의 인물 기능과 성격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11집, 열상고전연구회, 1998, 177~213쪽.

Abstract

The Problems of the Classes and Conflicts in Women in <Chunhyangjeon>

Kim, Hyun-Joo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nhyang and other kisaengs in the 103 versions of Chunhyangjeon collected in <The Collection of Chunhyangjeon>, giving attention to that the characters conflicts in <Chunhyangjeon> were not limited between Chunhyang and the town governor Byun and that there appeared many kisaengs other than Chunhyang. As the result, it has been found out in the 57 versions that Chunhyang and other kisaengs were i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s.

Their conflicts were layed out mostly within the limit from the bachelor Lee's going to Hanyang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Chunhyang's being beaten by lashing. The kisaengs raised the problem that Chunhyang was still a kisaeng even while she was trying to keep fidelity, and Chunhyang who rejected to be a kisaeng any longer was in conflict to the other kisaengs' attitude that considered her still one.

After all, the conflicts between Chunhyang and other kisaengs can be thought as caused by the limit of her class as a two-fold 'Other', being both a woman and a kisaeng, which was created by the society of the age. At that time women could be given their identities or values mostly by men. Different from other kisaengs, Chunhyang was given her place as a specific 'Other' through the

bachelor Lee. By that, the characters classes were differentiated, and their conflicts could be seen resolved.

Therefore, the conflicts between Chunhyang and other kisaengs in <Chunhyangjeon> proved the existence of the class problem between women, and had the function to remind the magnetic-field of the ideology of the day through which even love and fever could express their meanings when they were subject to men.

Key words : <Chunhyangjeon>, A Two-Fold Other, Conflicts in Women, Women Problems, Women Classes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